

보도자료

당사의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에너지 장치와 에너지 생산, 에너지 상용사업 구조로 외형성장 추구

사업구조 재편 계획

당사의 핵심역량인 에너지 관련 기계장치 기술을 기반으로, 1) 에너지 장치, 2) 에너지 생산, 3) 에너지 상용 부문으로 사업구조 재편하고, "그린에너지 토탈 패키지" 공급망 수직계열화를 통해 시장 선점 계획

1) 에너지 장치 부문

- 당사의 생산제품 전체가 화학생산 공정 및 에너지 장치 관련 공정의 핵심 장치임
- 당사는 각 기계 장치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핵심기술을 기반으로 수소생산시설 공정 전체에 대한 전략적 투자 및 시설투자를 계획중
- 에너지 생산 공정의 설계 및 운용과 관련하여, 한국전력기술개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공정 설계회사 등과 전략적 협업을 추진. 이를 통해, 향후 수소생산시설 직접 운용 계획
- 기초 원료인 페플라스틱 관련하여 집하, 재활용 등과 관련한 원료 수급과 관련된 사업까지 확장할 예정. 당사는 수소에너지 value-chain 중 핵심 사항은 원료의 확보와 원활한 수급으로 판단. 이에 고효율 페플라스틱발렛을 활용한 열교환 방식의 수소 생산방식으로 확장 계획
- 기존 플랜트 사업과 관련하여 유관 기업 인수, 합병을 통해 지속적인 외형성장을 동반할 예정

2) 에너지 생산 부문

- 당사가 보유할 수소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수소를 기초로, 수소 연료전지[2차전지 활용] 발전시설을 직접 운용하여 전력생산 계획

- 지역 전력 필요사업자 및 한국전력 등에 전력을 공급하여, 안정적인 전력 공급망 시설 확충할 예정
- 각 지역 산업 단지 등 독자전력이 필요한 시설에 당사의 발전운용체계 도입 추진

3) 에너지 상용 부문

- 전기차 및 내연기관차량 부품회사부터 상용 전기차 시장까지 에너지 상용 사업에 진출할 예정
- 현재 가동 또는 외형을 갖춘 회사를 M&A하여 효율화 함으로써, 빠르게 시장진입 계획

당사는 폐플라스틱 집하부터 수소생산 및 수소연료전지를 활용한 수소 및 전기 시장 진입 계획. 관련 원천기술부터 전력생산 및 관련시설, 수소상용차까지 수소 value chain 전반에 핵심 역량을 보유한 회사로 성장할 계획

관련 업종에 대한 빠른 인수합병 전략을 통해, 2024년까지 현재 규모에 약 4배 이상의 외형성장을 목표로, 2024년까지 매출액 및 영업이익을 향상시킬 계획

현재 당사의 업종인 기계장치 분야의 업종 평균 멀티플 17배 수준에서, 수소생산 및 발전, 전기차 및 차량부품시장의 평균 멀티플인 약 40~60배 수준까지 성장을 예상 가능